

#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7월 12일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호리 순로(堀 俊郎)

오이타현과 인연이 깊은 여러분, 오이타현에서 유학하셨던 여러분, 업무 및 시찰 등으로 방문해주셨던 여러분, 오이타에 흥미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 생생한 오이타의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오이타와 관련있는 여러분들과 꾸준히 소통해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오이타현 주목 기사>

### 대사 시찰

APU에서 개최된 태평양 제국의 기후 변동에 관한 회의에 6개국 대사가 참가하여, APU 유학생들과의 교류 및 OPAM, 유후시를 시찰하였으며, 통가왕국 주일대사, 마셜제도 공화국 주일대사 등이 기사를 예방하였습니다.

지사와의 간담회에서는 태평양 제국과 오이타현의 앞으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하였습니다.



### 중국 동북부 다롄(大連)에서 현상품·관광 PR

중국 동북 3성(랴오닝 성, 지린 성, 헤이룽장 성)은 인구 1억 명, 면적은 일본의 약 2배로 중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랴오닝 성 다롄시는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인구 700만 명의 도시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배경도 한몫하여 친일적이며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이 많고, 약 6,000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어 일본과 관계가 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다롄시에서 6월 9일(목)~12일(일)에 걸쳐 ‘일본상품 다롄지구 순회전’이 개최되었습니다. 방어 회 및 수산 가공품, 일본 사케 등 현의 상품을 출품함과 동시에 오이타현 관광부흥 PR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자수는 4일간 약 25만 명으로 방문객들 앞에서 방어 해체 쇼를 보여준 후 방어 요리를 대접했으며, 현내 7곳의 주요 메이커의 사케 판매 촉진 및 ‘싱크로 인 온천’ 영상의 상영, 현지 미디어로부터의 취재 등 오이타의 매력을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현지에서의 시장 조사 및 상사와의 상담도 진행되어 앞으로의 거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브랜드추진과]



### JICA사업에 공공 화장실 시스템 사업이 채택

국제협력기구(JICA)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해외전개 지원 사업’에 바이오식분해 화장실 ‘바이오미칼렛’의 해외전개를 도모하는 합동회사 TMT.Japan (오이타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카메룬에서 인플라로서의 공공 화장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도인 야운데시와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현지에서의 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행하는 ODA사업입니다.



#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7월 12일

## 오이타 100% 즐기기! 삿포로맥주 규슈 히타공장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무더운 여름, 오이타현에서도 신선하고 맛있는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바로 오이타현 북부에 있는 히타시의 삿포로 맥주 공장입니다. 물의 고장이라고도 불리는 히타시에는 깨끗하고 양질의 물이 풍부하며, 교통의 요지라는 완벽한 입지조건 덕에 다양한 양조장이 존재합니다. 그 중 일본 대표 맥주 브랜드인 삿포로 맥주의 규슈 히타 공장은 2000년 3월 설립된 이후 견학 코스를 마련하여 연간 방문객 수 20만 명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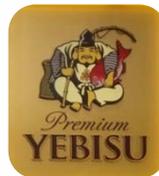
자유 견학은 무료, 투어 견학은 참가비 500엔. 쿠로라벨과 에비스 코스로 나뉘며, 코스가 끝난 후에는 신선하고 맛있는 맥주를 시음할 수 있으며, 기념품으로 맥주 잔도 받게 됩니다. 투어는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지만 외국어 리플렛이 갖춰져 있으며, 코스에 따라 정원 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 쿠로라벨 맥주 투어

삿포로 맥주의 상징이기도 한 별 모양 라벨. 이 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쿠로라벨 투어는 쿠로라벨의 의미와 맛의 비결 등을 소개하는 10분 정도의 짧은 영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참고로 별은 북극성을 의미합니다.

이어 간단하게 쿠로라벨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제조공정을 살펴보는 공장 견학을 하게 됩니다. 맥아 제조 후 담금, 발효, 숙성, 여과 등의 공정을 거쳐 포장까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분간 1,500캔의 캔맥주와 500병의 병맥주를 생산한다는 포장 라인의 놀라운 속도와 규모가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맥주는 주로 규슈 전체와 추고쿠, 시코쿠 지방으로 운송되어 판매된다고 합니다. 견학 코스의 마지막은 히타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라운지에서의 맥주 시음입니다. 물과 대맥, 홉 등으로 만들어지는 쿠로라벨은 몇 잔을 마셔도 질리지 않는다는 특징 그대로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의 맥주였습니다.



### 에비스 맥주 투어

에비스 맥주가 삿포로 맥주의 브랜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비스 투어에서는 맥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았습니다. 도쿄의 에비스역이 에비스 맥주 공장에서 따온 이름이라는 것, 또 이 역이 맥주의 유통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 1904년 당시의 맥주 한 잔 가격이 소바 10그릇에 해당하는 고가였다는 것 등 흥미로운 내용으로 가득한 투어였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에비스맥주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포스터 및 상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일본 최초의 에비스 맥주 비어홀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비어홀 건물 벽면에 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하여 에비스 맥주의 역사를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시음 시간에는 2007년 판매되었던 에비스 <더 홉>이 기프트용으로 한정판매되는 기념으로 직접 더 홉의 캔맥주를 시음할 수 있었습니다. 맥주를 맛있게 따르는 방법도 배워 직접 따라 마시니 한층 더 맛있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에비스 <더 홉>의 시음은 7/18까지)



#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7월 12일

## 히타 마메다마치(豆田町)&히타 야키소바



마루야마 성을 중심으로 생긴 성하마을인 마메다마치는 에도시대 막부의 직할 영지로서 규슈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발달한 곳입니다. 바둑판처럼 잘 정비되어 있는 거리에는 전통 가옥들과 상점들이 들어서 있고, 옛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산책하는 발걸음을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에도시대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쳐 세워진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마메다마치는 2004년 국가 중요전통 건축물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히타의 대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야키소바는 일본 어디서든 접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먹는 대중적인 음식이지만, 히타 야키소바는 일반 야키소바와는 다른 특징으로 히타시민들의 소울푸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야키소바는 면을 볶아 만든다면, 히타 야키소바는 삶은 면을 철판에 구워 충분히 늘어붙을 정도로 바삭바삭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아삭아삭한 숙주가 더해지면 바삭바삭한 식감의 면과 소스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적 없는 독특한 식감이 먹는 재미를 더 해주는 히타 야키소바는 점포마다 맛과 특징이 조금씩 다르니 그 차이를 비교해보시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오이타 소식>

#### 오이타현에서 촬영한 영화 개봉

나카츠, 키츠키시를 중심으로 촬영된 영화 '사브이보마스 크'가 지난 11일 전국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쇠퇴해버린 지역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래와 열정으로 마을의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현내 3곳에서 약 1개월에 걸쳐 촬영되었습니다.

#### '싱크로 인 온천' 갤럭시상 수상

온천에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하는 현 프로모션 동영상 '싱크로 인 온천(シンフロ)'가 우수한 방송에게 수여하는 '제 53회 갤럭시상' CM부문에서 '선장' 상을 받았습니다. '선장'은 대상, 우수상에 이은 상으로 240여 작품 중에서 선정되었습니다.



#### 오이타 공항에 족욕탕 오픈

오이타 공항 1층 도착 로비에 족욕탕이 설치되었습니다. 온천수는 40~42도 정도의 뱃푸 온천 가케나가시(かけ流し:원천을 계속 흘려보냄)로 이용 시간은 11시부터 18시까지며, 입욕은 무료입니다. 스타킹 및 양말을 벗을 수 있는 탈의실도 마련되어 있으며, 공항 한정 상품인 온천현 손수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규슈는 지난 6월 초 장마가 시작되면서,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 시원함을 더해주는 7월호였길 바라며, 다음 호에서도 오이타의 다양한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국제교류원 김진아